



##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에 반대한다

근자에 가중되는 시장개방 압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농축산물 개방정책은 날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을 표면화 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축산업계를 강타, 축산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양돈불황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해태그룹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으로 인하여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에 가해질 타격은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자유화 조치가 해외시장 개방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돈육가공품은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기도 남는 축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다, 생산자의 대다수가 농민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우기 갑작스런 돼지고기 수입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이들은 하필이면 재벌기업에 의한 대량·독점 수입이라는 사실에 경악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상 재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 제품과는 경쟁할 엄두조차 못내는 국내 돈육업계에 수입품을 풀어 놓는다는 것은 아마도 “누워서 떡먹기”식의 돈벌이 일 것이다.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어차구니 없게도 재벌기업의 독무대를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중소기업이나 농민의 생계분야에까지 사정없이 파고 들어와서 문어발식으로 지배영역 확장에 혈안이 되고 있는 재벌의 기업윤리 부재와, 이것을 방지하고 있는 공정거래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제려니와, 이와같은 재벌위주 정책으로는 성장과 안정 및 분배의 균등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계도 그들 스스로 국산품애용 계몽과 안이한 경영방식에서 탈피, 합리적 기업경영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 등 행정부처간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 등 내부적 문제점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내 양돈농가와



주 종 환  
(동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 조치는  
어처구니 없게도 재벌기업들에게  
'누워서 떡먹기'식의 돈벌이를  
애써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어 버렸다.

육가공업계와의 보이지 않는 마찰 등은 우리의 빈곤한 농가 현실에 비추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축산업계의 힘을 합쳐 대외 설득력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EC 여러나라, 심지어 미국마저도 농축산물 수입을 자유화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농축산물의 경우, 대개의 선진국들은 높은 관세장벽을 쌓아 올리고 고율의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으며, 수입은 엄격하게 정부관리 아래 일원화하고 있어 민간업자에 의한 자유로운 수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들의 값싼 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희생 아래서 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선진국가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민의 실업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의 농민 실업자를 구제해 줄 만큼 우리나라 농민은 여유있는 농민이 못된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선진국으로 부터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EC에서와 같이 당연히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여 그것을 농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한다. 이에 선진국이 불평을 한다면 EC에서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이것을 과할 수 밖에 없다는 합리적 주장을 내세우므로써 납득시켜야 한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이 국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수입 창구를 농협이나 축협으로 일원화 시킴으로써 직접 피해자인 농민의 의견이 농축산물 수입문제에 다소나마 반영되도록 하고, 수입에서 오는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쇠고기 수입 등에 실시되어 왔으나 이를 돼지고기 통조림은 물론, 유제품 등 모든 농축산물 수입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도 그만큼 해주어야 하는데, 국제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계산하여 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대부분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농축산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는 나라는 주로 미국이다. 따라서, 어차피 돼지고기 통조림을 수입해야 한다면 EC보다는 미국쪽으로 수입선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끝으로, 단순히 경제적 비교우위론에 의한 농축산물의 무리한 수입확대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현재의 여건하에서 농축산물 수입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